

다니엘서 - 번호 사십육

휴식과 재충전

Jeff Pippenger

2024-01-10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겠는가? 젓에서 막 댄 자들, 젓가슴에서 막 떼어낸 자들에게겠는가? 이는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며;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할 쉬이요, 이것이 새롭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며;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잡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계약을 하였으니,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하였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기초로 한 돌을 두니, 시험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잇돌이요 견고한 기초라.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또한 공법을 측량줄로 삼고, 의를 추로 삼으리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이 숨는 곳을 넘치리라. 너희의 사망과의 언약이 무효가 되고, 스올과의 계약이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는 그것에 밟히리라. 이사야 28:9-18.

1863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조롱하는 자들이 밀러의 보석들을 덮어 감추고 그것들을 위조 동전과 보석으로 대체하는 점진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거짓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으며 "거짓 아래" "숨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안식"과 "새롭게 함"의 마지막 날 메시지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이신,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여 너희 죄가 지워지게 하라.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주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분은 만물이 회복되는 때까지,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모든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 모세는 참으로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말하는 모든 것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절되리라 하였다. 또한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은 모든 선지자들, 말한 자마다 이 날들에 대하여 역시 미리 말하였다. 사도행전 3:18-24.

베드로는 모든 선지자들이 새롭게 함의 때와 늦은 비에 관해 말하였다고 밝히며, 이사야는 조사심판이 마무리될 때, 죄가 도말되고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최종적인 새롭게

함의 때를 거부하는 무리를 지목하고 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는 죽음의 언약을 맺은 그 무리는, 베드로에 따르면 "백성 가운데서 멸절되리라." 화이트 자매는 이사야의 안식과 새롭게 함의 바로 그 때를 자주 언급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에 연합하는 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추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 범위와 전례 없이 큰 능력을 지닌 사업이 예언되어 있다. 1840-44년의 재림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현현이었으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모든 선교 지역에 전파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래 어느 나라에서든 목격된 것 중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에서 일어날 그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그 일은 오순절의 날의 일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의 시작에 성령의 부어 주심 가운데 '이른 비'가 주어져 귀한 씨가 싹트게 한 것처럼, 그 끝에는 추수를 익게 하기 위하여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내리시리로다." 요엘 2:2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17, 21.

"복음의 위대한 사업은 그 시작을 특징지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보다 더 약한 나타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시작 때 이른비의 부어 주심 가운데 성취되었던 예언들은 그 마침에 늦은비 가운데 다시 성취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며 바라보았던 '새롭게 하심의 때'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는 주 앞에서 새롭게 하심의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지워지게 하려 함이며, 또 주께서 예수를 보내시리라.' 사도행전 3:19, 20." 대쟁투, 611.

그 시험은 '줄 위에 줄'로 표현되는 늦은 비의 방법론에 기초해 있다. 그 시험의 기별은 '다른 방언'을 쓰고 '더듬는 입술'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파수꾼들에 의해 전해진다. 늦은 비의 시험 기별은 재림주의가 반역의 역사 전반에 걸쳐 채택해 온 배도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방법론으로 훈련받지 않은 파수꾼들에 의해 전해질 것이다.

시험이 모든 영혼에게 닥칠 날이 머지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세속의 요구에 한 걸음 한 걸음 굴복하고 세상 풍습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 그리고 죽음을 자초하느니 차라리 기성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이 투쟁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의 싸움이다. 이때 교회 안에서 정금이 찌꺼기와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그 겉모습과 겉치레와 뚜렷이 구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함을 감탄하던 많은 별들이 그때에는 어둠 속에서 꺼질 것이다. 구름 같은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이니, 우리가 풍성한 밀로 가득한 타작마당으로만 보았던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을 걸친 듯하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자들은 자기들의 별거벗음의 수치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열매 없는 나무들이 땅만 버리는 것들로서 찍혀 나가고, 수많은 거짓 형제들이 참된 자들과 구별될 때, 그때 숨겨져 있던 이들이 드러나 호산나를 외치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모일 것이다. 소심하고 자기불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자신을 밝힐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머뭇거리던 자들도 다윗처럼 행하고 담대히 나아가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찬란하다. 사탄이 신실한 자들을 심히 괴롭히겠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달같이 어여쁘고 해같이 맑으며 깃발을 든 군대같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선교 활동으로 뿌려지고 있는 진리의 씨앗들이 그때 싹트고 꽃피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환난을 견디며 예수를 위해 고난받게 됨을 하나님께 찬양할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넘치는 재앙이 온 땅을 지나가고, 키가 여호와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사탄의 전리품들이 높이 치켜세워질지라도, 순결하고 거룩한 이들의 믿음은 굴하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발을 갈던 엘리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 성별을 상징하는 자신의 겹옷을 그에게 던졌다. 이 위대하고 엄숙한 사역에의 부르심은 학식과 지위를 지닌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들이 자신을 작게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기치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승리로 나아가는 영예를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의 영향에 굴복했으며, 주님은 그들을 버리셨다.

많은 이들이 과학을 높이 받들고 과학의 하나님을 간과했다. 가장 순수하던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시대에 극소수만이 예상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는 과학적 기관들의 외적 훈련이 아니라 그의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높이실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만, 외적인 자격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학식 있고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필멸의 인간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증언, 제5권, 81, 82.

"넘치는 채찍"은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에 시작되는 일요일 법령을 상징한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일요일 법령의 시험 기간을 나타낸다.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비록 미국이 앞장서지만, 동일한 위기가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6, 395.

일요일 법령 직전에, 주님의 입에서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들이 토하여 버려지듯, 밀려의 꿈의 가짜 동전들이 창밖으로 쏠려 나간다. 그때 교회는 기치로 높이 들리며,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세운 군대처럼 위엄 있는' 모습이 된다. '다른 언어'와 '더듬는 입술'에서 나오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학문 기관들의 외적인 훈련이 아니라 그분의 영의 기름부으심으로 가르침을 받고 일으켜 세움과 높임을 받는 자들을 가리킨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줄 위에 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예언은 봉인된 책과 같이 되어 버렸다.

베드로에 따르면 사무엘 이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역사는 늦은 비 기별을 거절하는 재림교인들의 멸망에 대한 여러 예증을 제공하지만, 그들이 일요일 법령 때 당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잃었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과 동반된 영적 죽음이며, 이는 아모스서에서 자신들이 구원을 잃었음을 깨닫는 어리석은 처녀들로 대표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리는 기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하는 갈증도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려다닐 것이나, 얻지 못하리라.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이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며 말하기를, 단아, 네 신이 살아 있다, 또는 브엘세바의 풍속이 살아 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이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8:11-14.

이사야는 '넘치는 채찍'이라는 상징으로 일요일 법령의 때를 언급한 뒤, 죽음과 언약을 맺은 자들의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다룬다.

너희가 사망과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되고, 지옥과 맺은 협정은 서지 못하리라. 넘쳐흐르는 재앙이 지나갈 때에 너희는 그것에 짓밟히리라. 그것이 나아오는 그때부터 너희를 휩쓸어 가리니, 아침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낮에도 밤에도 그러하리라. 그 소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오직 괴로움일 뿐이리라. 이사야 28:18, 19.

그때에는 밀러의 보석들로 상징되는 지식의 증가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얻을 수 없겠지만, 점진적인 일요일 법령 위기에 관한 보고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죽음과의 언약이 무효화되었음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 "거짓" 아래 숨어 있던 이들은 그때 "주 하나님"께서 "시온에 기초가 될 돌, 시험된 돌, 귀한 모퉁잇돌, 견고한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겠지만,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그들이 역사를 지나오며 그 아래 숨어왔던 거짓들은 그때 쓸려가 버린다. 그 노골적인 거짓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울라이강의 환상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밀러주의자들은 다니엘 2장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따라, 다니엘 8장의 나라들을 7장에 나타난 나라들과 동일한 나라들로 식별했다. 두 장의 차이점은 7장은 그 나라들의 정치적 요소를, 8장은 그 나라들의 종교적 요소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 8장은 성소의 용어로 묘사된다.

다니엘서 8장은 왕국들을 나타내기 위해 성소의 상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장에 나타난 모든 성소 상징은 타락해 있어, 그리스도의 참된 종교와 사탄의 거짓 종교를 구별하게 한다. 숫양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물로 사용되던 동물이지만, 성소의 모든 제물은 완전해야 했다. 그러나 8장에 나오는 그 숫양은 뿔이 서로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물로 사용될 자격이 없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강 앞에 두 뿔이 있는 숫양 하나가 서 있었고, 그 두 뿔은 다 높았으나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높았으며, 더 높은 것이 나중에 났더라. 다니엘

8:3

길이가 서로 다른 두 뿔을 지닌 수양은 하나님의 성소에 바칠 제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 상징은 하나님의 참된 종교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위조 종교, 곧 이교의 것이다. 그다음 나라는 염소로 대표되었는데, 염소 역시 성소에 바치는 제물이지만, 그 염소는 눈 사이에 하나의 뿔이 있어 성소 제물에 요구되는 완전한 대칭을 갖추지 못한 변질된 모습이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을 가로질러 오되 땅에 닿지 않았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하나 있었다. 다니엘서 8:5.

결국 염소의 뿔이 부러져 네 개의 뿔이 돌아났고, 이는 또한 그 염소를 하나님의 성소에 드릴 제물로 부적격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심히 강대해졌고, 그가 강성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며, 그 대신에 하늘 사방을 향하여 두드러진 네 뿔이 돌아났다. 다니엘서 8:8.

다니엘서 8장은 바벨론 왕국이 어떤 상징으로도 제시되지 않은 채 시작된다. 성경 예언의 첫 번째 왕국인 바벨론은 이미 2장과 7장의 두 증거에 의해 성경적으로 확립되었지만, 8장에서는 결국 치유될 치명적인 상처를 교황권이 받는다는 예언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바벨론이 의도적으로 감추어진다.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때부터 치유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교황권은 예언적으로 감추어지거나 잊혀진다. 이 감춤은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제거되었다가 이후 회복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니엘서 8장은 메대-바사 왕국을 상징하는 숫양을 소개함으로써 둘째 왕국의 직접적인 상징으로 시작하며, 이어 그리스 왕국을 상징하는 부패한 숫염소가 등장한다. 그다음 그리스의 네 뿔이 분해되어 사방의 바람이 되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다니엘은 넷째 왕국인 로마를 나타내는 작은 뿔을 본다. 작은 뿔은 로마의 두 단계를 모두 나타내며, 이는 네 구절에 걸쳐 표현된다. 이교 로마는 남성형의 작은 뿔로, 교황 로마는 여성형의 작은 뿔로 표현된다.

그들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까지 커져 군대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 그는 군대의 주관자에게까지 스스로를 높였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는 제사가 제거되었으며 그의 성소가 헐렸다. 범죄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는 제사에 대항하도록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가 진리를 땅에 던졌으며, 행하여 형통하였다. 다니엘서 8:9-12.

9절에서 서사에 등장하는 로마의 작은 뿔은 남성 시제로 표현되고, 이어 10절에서는 여성 시제로, 11절에서는 남성 시제로, 12절에서는 다시 여성 시제로 표현된다.

다니엘서 8장은 첫 번째 왕국을 감추고, 다음 두 왕국은 타락한 성소의 짐승들로 상징되며, 네 번째 왕국은 뿔로 상징된다. 그 뿔은 예언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남성으로 나타났다가 여성으로, 다시 남성으로, 그리고 다시 여성으로 나타난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모두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다. 신명기 22:5.

이교 로마의 작은 별의 남성형은 9절과 11절에, 교황 로마의 작은 별의 여성형은 10절과 12절에 나타난다. 작은 별의 성별은 다니엘의 말을 원문 차원에서 고려할 때 드러나는데, 이것은 밀러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Cruden's Concordance만 사용했으며, Cruden's Concordance에는 원어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 네 구절 전반에 걸친 성의 교대는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인지했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안다면 그들은 본문에서 그 성 구분을 보존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자들은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작은 별'이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그 구별을 "it"이라는 단어로 나타냈다. "it"이라는 단어는 '작은 별'이 여성형일 때 사용된다. 다니엘서 8장 10절을 보라:

그것이 매우 커져 하늘의 군대에까지 이르렀고,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 일부를 땅으로 내던져 그것들을 짓밟았다. 다니엘 8:10.

그것은 "매우 커졌고", 또 "그것이 내던졌다", 이로써 작은 별이 그 여인임을 가리킨다.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적하도록 그에게 한 군대가 주어졌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졌으며,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8:12.

12절에서는 "him"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작은 별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그 절에서 작은 별은 두 번이나 "it"으로 지칭되어, 여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번역자들은 분명히 다니엘의 성 구분을 인식했지만 다니엘의 의도에 확신이 없었고, 이탤릭체로 표시된 "him"을 덧붙여 그 절의 작은 별을 남성으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이는 다니엘의 실제 표현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작은 별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it"(여성인 작은 별)이 진리를 땅에 던졌으며, "it"(여성인 작은 별)이 행하고 형통하였다고 말한다.

9절에서 '작은 별'이라는 표현은 남성형이며 이교 로마를 가리킨다. 그것은 그리스 제국이 해체되어 나뉜 '네 바람' 가운데 하나에서 나왔다. 그 절에서, 역사와 일치하게, 이교 로마는 세상의 왕좌에 자리를 잡아 가면서 세 개의 지리적 지역을 정복했다.

그 중의 하나에서 한 작은 별이 나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다니엘서 8:9.

11절("the daily"를 둘러싼 논쟁의 주요 전장 중 하나)에서 작은 별은 "he", "him", "his"로 지칭된다.

정녕 그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재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늘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졌으며, 그의 성소의 처소가 내던져져 무너졌다. 다니엘 8:11.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의 모든 원리는 제자리가 있고, 각 사실은 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조는 설계와 실행에 있어 그 저자를 증언한다. 그러한 구조는 무한하신 분의 지성 외에는 그 어떤 지성도 구상하거나 형성할 수 없다." 교육, 123.